

TSR활성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 개최



지난해 12월 10일 우리 협회내 북방철도운송소위원회는 ‘한·러 교통협력위원회’ 회의차 방문한 러시아 교통부 대표단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활성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협회장을 비롯한 북방철도운송소위원과 사조노프(Sazonov V. N.) 철도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1명의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사조노프차관은 TSR서비스의 핵심인 TKR(한반도중단철도)연결을 위해 최근 원산-금강산 구간의 철도상황을 실사하였으며 2003년에는 TKR 전구간을 실사할 계획으로서 TSR과 TKR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연결을 위해 주한

러시아철도대표부 설치 및 북한철도망 개선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축 등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북방철송위원들이 2003년도에 TSR운임을 인상한다는 사실여부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대표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TSR운임인상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지역등 TSR 철도구간의 화차부족으로 인해 일주일이나 화물운송이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측은 이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화차 수를 늘려 정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함께 러시아지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진입이 쉽도록 검토하겠다고 러시아대표단은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 복합운송업계의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TSR이용에 편의를 증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 협회 회장 역시 본회에 북방철도위원회라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정도로 TSR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여러모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무쪼록 러시아 정부가 TSR의 활성화를 적극 원하는만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취합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항공화물운임체제, Net/Net정산제 시행 반대

대한항공에서 화물운임체제를 현행 FNP(가격 운영방식(%))에서 가격표시방식인 FNR(Full portion net excluding normal commission rate : Net/Net 정산)방식으로 변경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하여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전의 FNP(Full portion net excluding normal percentage) 방식은 항공사/포워더간 가격결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며, Tariff대비한 %가격표시에 따른 정산시 다시 Rate로 환산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Commission을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가격운영이 편리한 FNP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Net/Net정산방식으로서의 가격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회원사의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68%의 다수가 FNR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이의 시행은 우리 복운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항공분과위원회(2002.12.18)의 협의를 거쳐 동 운임체제변경을 유보토록 대한항공에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IATA Regulation상 포워더 몫인 5% Commission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수의 포워더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항공사·포워더간의 심도있고 신중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5기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갱신
- 종전보다 5%인하, 개별손보사 가입시보다 20%이상 저렴 -

지난 11월초 우리 협회는 현대, 동양, 쌍용화재 등 3개손해보험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갱신하였다.

현행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중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또는 컨테이너장치장 소유업체 제외)되어 있어 동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원사가 보다 저렴한 요율과 추가담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600여개 회원사가 이용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98년부터 단체계약을 체결하

여 매년 소폭씩 요율을 인하, 지난해에 비해 5%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보다 20%이상 할인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동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송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의무인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 등에 담보가 되며 자기명의의 B/L 및 파트너B/L(사전 신고된 경우에 한함), Inbound Nomination화물, 선급금(클레임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경우 총 예상 보상금중 50%의 선급금 지원)등 추가 담보혜택이 있다.(16면 자료참조)

연수교육과정 · 실무교육강화
- 10개과정 총 42회, 항공포워딩부산교육 신설 -

복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2003년도 우리 협회 연수교육이 해상포워딩단과반교육을 비롯한 10개과정으로 총 42회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내용은 해상 및 항공포워딩기초반교육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3주→2주)으로 축소·조정된 한편 항공포워딩기초반교육이 2회에서 3회로, 해상 및 항공포워딩단과반교육이 4회에서 5회로 각1회씩 증설되

었다.

또한 항공포워딩부산교육을 신설(1회)하였으며 통신영어 6회, 영업실무 6회, C/S예절교육을 10회 실시할 예정이다.(14면 자료참조)

한편 복합운송중급반 및 항공위험품취급반은 그간 수강 신청자 저조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폐지하였으며, 지난해 연수교육은 총 9개과정에 27회 실시, 1303명이 수강하였는데 1회 평균 48.2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려해운항공 : 대통령상, 대동종합물류 : 국무총리상 수상
- 2002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물류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제10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고려해운항공(대표 : 이민후)이 대통령상, 대동종합물류(대표 : 윤원기)가 국무총리상을 수

상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2년도 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고려해운항공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예견하고 일찍부터 물적인프라

를 통한 전산시스템과 물류창고시스템의 혁신, 국내외 네트워크와 지식경영의 업무전산화, 인천과 김포간의 연계 물류창고구축으로 대고객만족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인적인프라를 통한 전략적 성과평가제도 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국가물류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동종합물류는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원

터치시스템 즉 화물포장, 보관, 통관 하역, 내륙·해상·항공·해외철도·제3국연계운송등 물류과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물류인프라 IT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편 동 시상식외에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물류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었다.

미국행 해상화물, 선적 24시간전에 화물정보제출 의무화

앞으로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 화물정보를 제출도록 의무화하였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사태이후 미국에서는 Homeland Security Programe중의 하나인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핵심내용으로 미국행 화물의 선적 24시간전까지 14개 항목에 대한 화물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New US Customs Rules - Advance Filing of Cargo Declaration을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토록 공포했다.

금번 조치는 테러 의혹이 있는 화물을 미국항만이 아닌 외국항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선적을 금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항차 전화물 또는 해당화물을 양하금지키로 하였으며 첫회 위반시 \$5,000, 2회부터는 \$10,000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 복합운송업체는 선적대상화물의 정확한 명세를 최소한 선적일 3~4일 전에는 미국세관 또는 해당선사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17면 참조)

국내·외 운임 장기미납무역업체 공개 -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지난 3개월간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합운송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임을 장기간 체납하는 무역업체를 공개하였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장기간 운임을 체불한 무역업체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이행을 하지 않는 해외포워더 명단이 접수되면 해당 무역업

체, 해당 외국포워더 및 해당국가의 포워딩협회에 일정기간까지 납부토록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내 장기미납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송일자	미수금액(원)
중앙물산	전춘우	경기 양주군 회천읍 울정리 167-6	031-866-1511	2002.6.~8.	3,766,870
슈산서울포스트발코리아	최대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1-5 은성빌딩408호	02-927-5366	2002.7.3	479,947
서한공업	김광규	부산 사하구 신영2 524	051-204-1920	2001.9.~11.	2,113,155
대주콘트롤	윤주안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9-4 두산빌딩307호	02-862-9791	2001.8.21	3,653,872
골든메탈	김의현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5-38	02-406-8737	2001.3.6	747,525

EDI이용료 인하요청 건의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에 -

우리 협회는 지난해 11월 19일 EDI이용료를 인하토록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관세청에도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우리 복운업체가 관세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적하목록을 전송(EDI)하기 위해 관세청의 전자사서함 운영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가입하여 수출입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기존의 TEXT MFCS체제에서 인터넷 방식인 eLogisframe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기본이용료 및 WEB EDI요금의 기존방식보다 너무 많이 인상되어 복운업체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TEXT MFCS의 경우 기본이용료(월정액)의 경우 해상 20,000원 및 항공 30,000원이었으나 현행 체계에서는 eLogisframe 기본이용료 해상 40,000원, 항공 50,000원과 WEB EDI

요금인 40,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등 종전의 월 50,000원에서 월 130,000원으로 260% 인상되었다.

이는 우리 850여 전체 회원사가 월 6,800여만원, 연간으로는 8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특히 WEB EDI 요금의 경우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항사무실 및 다른 지사에서도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로 모두 가입해야 하는 등 기존 체계에서 부담하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eLogisframe 기본이용료 및 WEB EDI이용료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했다. 이는 동 시행령(안)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할 경우 수출화물의 운송작업량이 평소보다 1/4수준으로 격감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행령을 대폭 완화토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협회는 동 의견을 통해 현행 보세창고내 24시간 장치운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색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출지원 차원에서 보세창고 24시간 장치시 보안검색을 면제하여 주고 또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하고 화물을 관리할 경우

동검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보안검색은 여객기의 경우 공항운영사는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물기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엑스선 검색, 개봉검색, 폭발물탐지 장비 또는 탐지견에 의한 검색,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외사항으로 검색장비, 보안검색요원 확보 및 화물보안 대책 등 적합한 보안기준을 갖추고 있는 자의 운송화물 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을 면제해 줄 예정이며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고시로 제정된다.

제6회 회장기쟁탈 회원사친선 볼링대회 열려

- 우승 : 일양익스프레스, 준우승 : 에이엔씨인터내셔널 -



제6회 협회장기쟁탈 회원사친선 볼링대회가 지난 10월 26일 세종볼링장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동 대회는 금년이 6회째를 맞이한 대회로서 13개사 39명이 3인(남:2명, 여:1명) 1조로 참가한 가운데 일양익스프레스(대

표 : 배광우)가 단체우승을 차지하여 회장기, 우승트로피 및 부상으로 국내왕복항공권 3매가 주어졌다.

또한, 단체준우승에는 에이엔씨인터내셔널(대표 : 이호우), 3위에는 케이더블유이코리아(대표 : 우에다 겐지)가 입상하였으며 남녀개인우승은 메인프레이트의 현동수 사장과 범양해운의 배은영이 차지하여 국내왕복항공권등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코리아쉬핑가제트, 일양익스프레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KTNET,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동양화재해상보험에서 협찬하여 입상상품 및 행운추첨에 의해 대다수의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

CASS 이행(지급) 보증보험 요율 1.5%로 인하 결정

- 수입항공화물 은행 포괄인도 승낙서 폐지 시행 연기 -

항공화물 운임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CASS 이행보증보험 요율이 크게 인하됐다.

지난 IMF 이후 크게 인상되었던 동 보험 요율은 항공화물대리점의 재정적 부담을 주어왔으며 보험료 지급율에 비해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 재정 부담의 경감과 요율의 현실화를 들어 인하 요구를 하여왔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동 보험요율의 인하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2.4%이던 항공화물운임 담보에 대한 보험요율이 1.5%로 낮추어져 우리 협회 회원사는 37.5%의 재정적 경감효과가 있다.

한편 인천공항 보세장치장 설영인(6개사)들

의 수입항공화물 L/C건에 적용하고 있는 은행 포괄인도 승낙서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대화주 홍보미비 등으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들어 이의 시행을 연기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보세장치장측에서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폐지키로한 2002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03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 되었으며, 보세장치장 설영인(6개사) 측은 동 업무를 반드시 시행할 것임을 언명하여 오는 2003년 3월 1일부터는 은행 포괄인도승낙서가 폐지될 예정이다.